

# 현대사 들춰내 전쟁 참혹상 고발



지압 장군을 찾아서  
안정효 지음  
들림 퍼냄 | 1만8천원

새로운 전쟁문학이라는 호평을 받은 <하얀 전쟁> <은마는 오지 않는다>로 우리의 기억에 인상깊은 작품을 발표했던 안정효. 그가 이번에는 전쟁과 인간이라는 진지한 주제로 <지압 장군을 찾아서>를 내놓았다. 이 책은 작가 안정효가 2002년, 한국과 베트남 수교 10주년을 맞아, KBS-TV <일오스페셜> 제작진과 함께 베트남을 찾아가 호치민(사이공)에서부터 하노이까지 '통일열차'로 종단하는 시점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 책 속에는 집필 당시인 2005년의 사건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역사적인 사건들, 예를 들어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 파병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시간 제약 때문에 억지로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지은이의 강한 의지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과연 지은이는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단순히 베트남을 여행하면서 들려주고 싶은 추억의 회고담일까? 아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아직도 이 땅에 '구원'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무의미한 전쟁과, 그 속에서 인간성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를 들려주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지난 세기, 역사의 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알려준다.

베트남의 일찍이 현대사는 포연(砲煙)으로 가득하다. 200년 가까이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은 1945년 호찌민(胡志明)이 선포에 나서 독립전쟁을 시작한다. 이른바 '인도차이나전쟁'이다. 베트남은 프랑스에 이어 미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끝마치는 1975년까지 30년동안 포연 속에서 120여만 명의 전사자를 낳았다.

호찌민은 46년 프랑스군에 선전포고를 한다. 이후 54년 베트남(越盟, 베트남은 호찌민이 독립을 선언하며 조직한 북베트남의 정규군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콩'은 남부 베트남에서 활약하던 공산주의자들)이 군은 베트남 중부 디엔비엔 계곡에서 프랑스군 12개대대를 격파, 프랑스군을 남쪽으로



호찌민(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과 보응웬 지압(맨왼쪽) 장군이 '디엔비엔푸' 전투중 작전회의를 하고 있다.

## 수없는 패전 겪으며 끝내 전세 뒤집은 지압 장군 격전지 따라 짚어본 베트남 '생생' 식민지, 독립전쟁, 분단, 남북전쟁으로 이어진 역사 통해 인간성 얼마나 피폐되는지 들려줘

밀어냈다.

이 전투가 그 유명한 '디엔비엔푸 전투'다. 중국 공산화와 한국전쟁을 겪은 미국은 아시아를 모두 잃을 것이라는 위기감에 프랑스를 대신해 온갖 포화기로 무장한 채 55년 베트남에 상륙했다. 75년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20년 동안의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전쟁의 시작은 호찌민이 시작했지만 프랑스와 미국을 상대로한 베트남의 30년 독립전쟁을 이끈 베트민의 주역은 지압 장군, 곧 지금도 생존한 보응웬 지압이다. 그는 충실한 호찌민주의자로서 수없이 많은 패전을 겪으면서 끝내 전세를 뒤집은 '백전불굴'의 장군이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베트남전의 영웅인 지압 장군의 격전지와 발자취를 따라가며 지은이가 카메라와 수첩에 담은 베트남의 과거와 현재가 이 책 속에 생생히 들어

있다. 특히 베트남 과거의 모습은 지은이가 66년부터 3년 동안 베트남전 중군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했다.

이 책에는 남베트남 공산화 과정의 슬픈 역사가 있는 고도(古都) '후에'의 불교도 활동도 소개돼 있다. 후에는 1964년 부처님오신날에 불교의 '깃발'을 금지시킨 반민 사제 서품식에 고통의 깃발을 게양토록 한 정부의 처사에 수천명 불교도가 집결해 항의 시위를 벌인 곳이다. 이곳에서 조직적인 반정부 투쟁을 벌인 불교 지도자가 짜깁스 스님이었다. 스님을 선봉으로 후예의 모든 승려들이 길거리로 나와 연일 연와 시위를 벌였다. 후예를 40년만에 다시 찾은 지은이는 이곳을 돌아보며 그때의 함성을 다시 듣는 듯 하다는 감회에 젖는다. 이 책에서 보여주는 베트남전이 다른 책에서 소개된 베트남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지은이가 시종일관 베트남전을 통해 준다든 점이다. 또한 미국



짜깁스 스님(사진 왼쪽)과 후예의 스님들이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베트남 난민들이 한국군의 감시를 받으며 성문 분류를 기다리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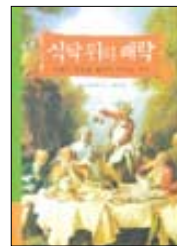


C-레이션 광풍을 받기위해 난민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의 용병이 돼 받는 하루 1달러에 목숨 걸었던 우리 군인들의 모습과 그들이 베트남 민간인을 잔혹하게 죽여야만 했던 비극적인 사실도 여과없이 보여준다.

지은이는 책 곳곳에서 이라크전 얘기도 빼놓지 않는다. 미국의 오판과 그것으로 빚어진 이라크 전쟁의 참상을 얼핏 드러내는데 이 책이 이 책의 주제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전의 슬픈 현실을 보여주려는 지은이의 의도가 엿보인다. 전쟁에 참가해 본 경험이 있는 지은이 인지라 어떤 명분이란 전쟁은 이 지구상에서 참혹한 현실만 남길뿐이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 같다. 그 강렬한 전달력은 지은이가 3년동안 중군 취재하면서 찍어왔던 빛바랜 사진들만 봐도 금방 느껴진다. 또한 지은이의 사진뿐 아니라 곳곳에 목숨 걸고 전장을 누볐던 세계적인 중군기자들의 현장감 있고 때론 섬뜩하리만큼 생생하게 느껴지는 사진들은 이 책이 주는 보너스다.

김주익 기자 jkim@buddhapia.com



식탁 위의 쾌락  
(부엌과 식탁을 둘러싼 맛있는 역사)  
하이든 메르클레 지음 | 신혜원 옮김  
열대림 퍼냄 | 1만8천원

로마시대 부잣집에는 식당이 몇 개나 있었을까? 중세에는 왜 그리도 양념에 집착했을까? 르네상스인들은 왜 포도주를 그토록 즐기게 마셨을까? 바비큐 파티에서는 왜 항상 남자가 고기를 구울까? 부엌과 식탁을 둘러싼 재미있는 이야기가 다양한 예피소드와 함께 흥미롭게 펼쳐지는 이 책은 2500년이 넘는 역사와 더불어 변천을 거듭해 온 음식 문화 탐방기이다. 손님 뒤로 신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 정성껏 대접하고, 노래와 춤으로 식사의 즐거움을 즐기던 고대 그리스인들. 예술의 경지에 다다른 그리스 향연의 음주 문화. 포도주로 손을 씻고 누워서 식사 하던 로마시대의 퇴폐적인 음식 문화.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철저히 구분되고 양념이 신분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중세시대. 손가락으로 먹던 관습에서 탈피해 드디어 포크 등장하고 음식에서도 고급화가 시작된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메뉴와 식탁 예절에서 현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19세기 시민사회의 음식 문화에 이르기까지 식탁의 일상적이고 다양한 모습을 관찰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 2500년 음식문화사 맛보기

지은이가 이 책에서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음식에 대한 미학적 접근과 거리두기이다. 어떤 대식가는 혼자서 많은 음식을 먹기 위해 끓는 물에 손을 담그고 뜨거운 물로 입을 행구어 무감각해지도록 만들었고 뜨거운 채로 서빙하도록 요리사를 매수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맛의 미학을 위해서는 조금씩 먹는 방법, 식사 전 잠깐 동안의 지연을 참아내는 것, 식사 도구로 손과 포크를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것, 음식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는 것 등을 추천한다.

식사, 그것은 즐겁고 유쾌한 행위이며 진정 '감사를 위한 축제'이다. 화려한 만찬이든, 소박한 상차림이든 식사는 인간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쾌락이기 때문이다. 역사 속 인물들의 때로는 우스꽝스럽고 때로는 진지한 모습에 놀라고 당황하기도 하지만 인류가 발전시켜 온 식사 문화를 들여다보는 것은 분명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유용한 지혜를 주며 색다르고 흥미로운 경험을 안겨준다. 음식과의 전쟁이 아니라 음식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즐김 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미식가가 될 수 있으며 식사는 최고의 쾌락이 될 것이다.

다양한 문화작품과 음식에 관련된 재미있는 그림 자료를 곁들여져 있는 이 책은 문화사적 자료로도 손색이 없다. 모두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시대의 증인들인 호메로스, 토포레, 토마스 만 등의 다양한 문화작품을 위주로 하여 고대 그리스에서 19세기까지 손님 접대와 음식 문화, 음식 문화의 문화사적 흐름을 따라간다. 시대마다 어떤 음식이 축제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는지, 음식 섭취라는 행위가 어떻게 미학적인 일로 바뀌어졌는지 재미있는 일화와 더불어 위트 넘치게 풀어내고 있다.

정지혜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강사)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http://www.yosiamun.com)

金光植先生の

# 漢文書堂

1卷



● 김광식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다 전수해드립니다.

## 머리에 쑥쑥!!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後學)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漢文書堂> 12권에 실었습니다.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 불자님들에게 희소식!!

명광문화원 김광식 선생의 "한문서당"은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금년 연말(12월말)까지 한정 특별판매를 단행합니다.

정가 180,000원을 150,000원으로 모십니다.

"한문서당"을 통해 깊은 학문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12개월(카드) 할부도 가능!!

### 주문처

현대불교신문 "마하몰" <http://mahamall.co.kr>  
TEL. 02)732-1520  
명광문화원 홈페이지 <http://mkmunhwa.com>  
TEL. 043)222-2257

## 한문이 이제 쉬어집니다.

### ◇ 현대불교신문!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 ◇ 충청투데이!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 ◇ 동양일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문에 쑥 한뎡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 ◇ 중부매일!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 ◇ 이원중 충북도지사!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 ◇ 김중호 전 내무부 장관!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 법주사 도공 스님!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